

# EAI 여론브리핑 제25호 (2008.2.7)

BBC월드서비스 ·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공동

## 34개국 국제현안 1차 발표 : 세계인의 세계화와 경제인식

### [조사방법]

2008년 프로젝트에는 미국, 중국, 영국을 비롯한 세계 34개 나라 성인남녀 34,50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대면면접 혹은 전화를 통해 200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월 25일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한국리서치가 2007년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만 19세 이상) 전국 1,031명을 대상으로 면접법으로 실시했다.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이다.

### [조사참여국가]

가나,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독일, 러시아, 레바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온드라스, 영국, UAE,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엘살바도르, 중국, 칠레, 코스타리카, 캐나다, 케냐, 터키, 파나마 포르투갈, 프랑스, 필리핀, 호주, 한국 (34개국 34,500명)

### [EAI 연구팀]

위원장 이내영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 위 원

이숙종 EAI 원장, 고려대 교수

서상민 EAI 연구기획국장

신영환 EAI 외교안보센터 연구원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간사 곽소희 여론분석센터 연구원





## ◎ BBC · EAI 정기 국제현안여론조사 2008

"21세기 국제무대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힘' 들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세계여론' 이다. 이라크 파병과 최근 FTA 협상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느 국가도 국익실현과정에서 세계여론을 무시하고 정책결정을 하기 힘든 시대가 온 것이다." ... 이내영 소장

EAI 여론분석센터는 2005년부터 영국 BBC월드서비스가 주관하고, 국제여론조사기관 글로브스캔(GlobeScan) 및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공공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총괄 기획하는 국제여론조사 콘소시엄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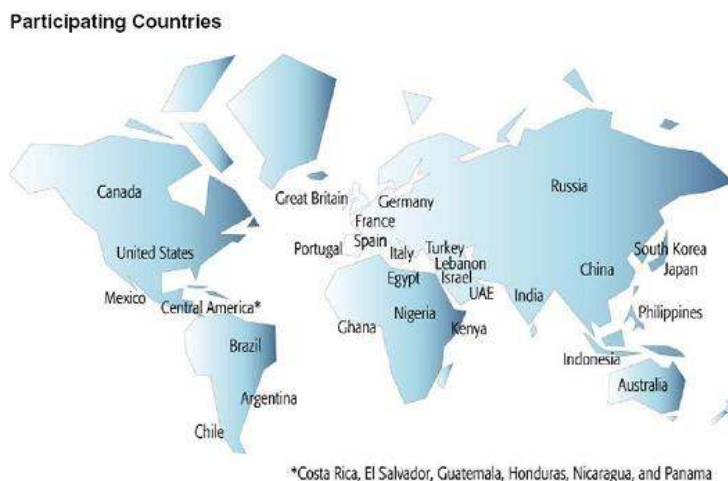
### 연구팀

위원장 이내영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이숙종 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서상민 EAI 연구기획국장  
신영환 EAI 외교안보센터 연구원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곽소희 EAI 여론분석센터 연구원

조사협력기관 한국리서치

### [발표안]

- 한국인 주변4강 인식 양분, 북한 등 분쟁유발국에 강한 불신...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 냉담한 세계, 외로운 미국, 전년 대비 다소 개선...신영환(EAI 외교안보센터 연구원)
- 중국의 국제 영향력에 대한 주변국의 부정적 평가...곽소희(EAI 여론분석센터 연구원)



그림출처 : GlobeScan · PIPA(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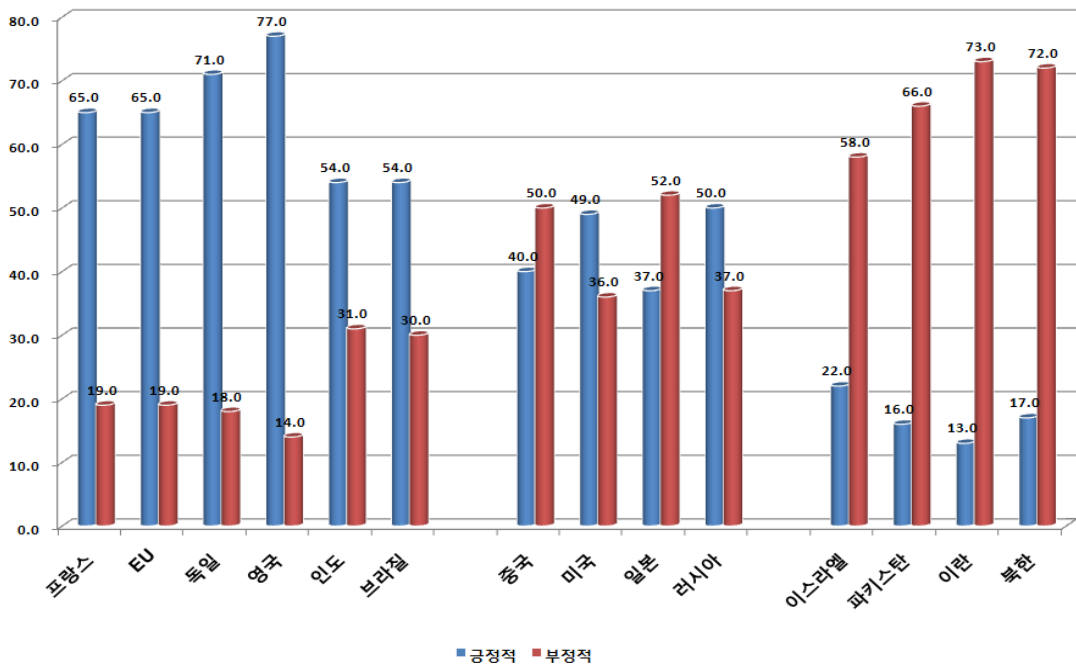
## 한국인의 주변강대국 인식

서상민

### □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인식 :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의 양극화

한국인의 한반도 주변 4강국에 대한 인식은 다른 조사대상국에 비해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양극화 되어 있다.

이번 BBC·EAI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각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라는 설문조사를 결과를 통해 보면, 조사대상 14개 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주변 4대강국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 간의 격차가 평균 8.5%로 그렇게 크지 않고 양분되어 있는 반면 EU, 프랑스, 독일, 영국,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국가들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의 격차가 평균 42.5%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약소국이지만 이스라엘,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과 같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인식 역시 평균 50.2%정도 부정적 인식이 높아 그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주변4강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러한 인식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특히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작은 이유는 장기간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밀접한 상호관계에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한국에 미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격차는 2005년 조사결과 비교해 봐도 거의 비슷하다. 2005년 조사에서는 중국의 경우 격차가 1.9%, 미국 6.8%, 일본 19.1%, 러시아 5.1%로 평균 8.2%의 격차를 보여 이번 조사결과의 격차인 8.5%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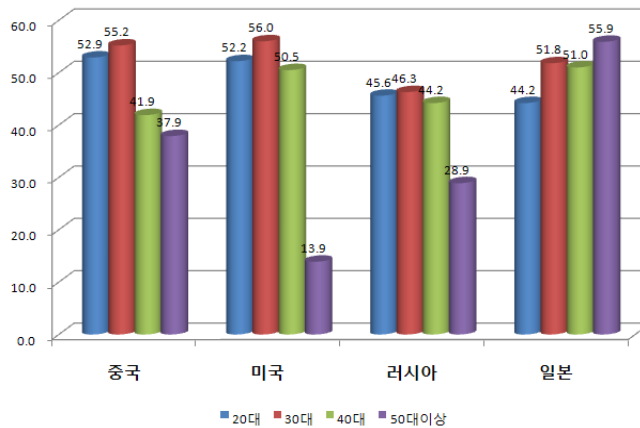


강대국들에 인식이 시기나 상황에 따라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의 반전은 가능하지만 인식의 양극화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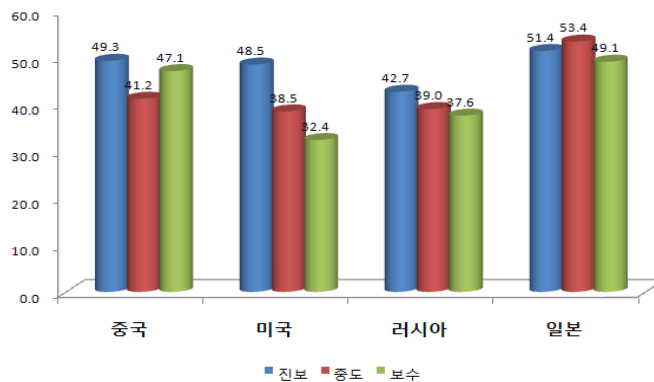
□ 한국인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해 이념적 격차보다 세대간 격차가 더 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변 4강에 대한 세대별 인식격차가 이념적 인식격차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면, 중국의 경우 세대간 격차가 최고 17.3%였으며(20대 52.9%, 30대 55.2%, 40대 41.9%, 50대 이상 37.9%), 미국의 경우는 중국보다 더 심각하여 그 격차가 42.1%(20대 52.2%, 30대 56.0%, 40대 50.5%, 50대 이상 13.9%)에 이른다. 이는 이념성향에 따른 격차인 8.1%(중국), 16.1%(미국)과 비교해 매우 큰 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다시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세대간 인식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세대간 부정적 인식의 격차는 최고 9.5%였고, 이념적 격차는 최고 3.4%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역시 각각 19.7%와 13.1%였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친중이냐 반미냐, 반중이냐 친미냐” 하는 한국인의 주변 강대국에 대한 인식은 점점 이념적 기준보다는 비이념적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간 격차



이념적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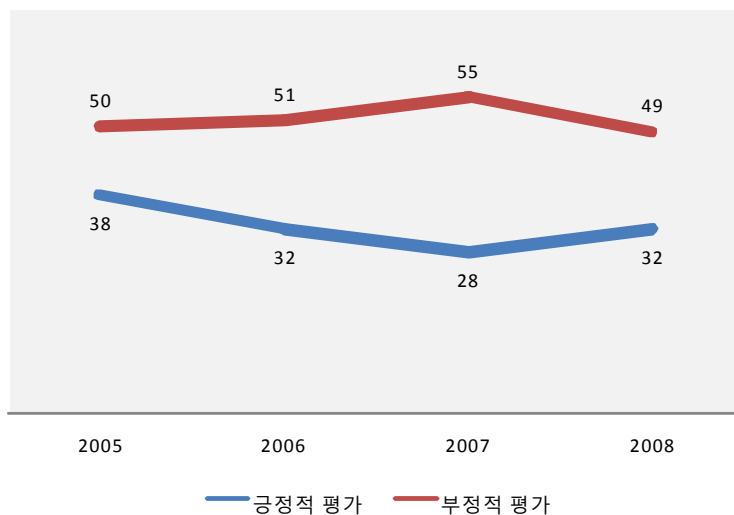


## 냉담한 세계, 외로운 미국 :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세계의 평가

세계는 오늘날의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전세계 34개국 총 17,58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국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14개 조사대상국 중에서 미국의 영향력 평가는 긍정적 평가를 기준으로 9위(긍정적 38% 부정적 44%)에 머물렀다. 그 뒤로는 러시아(37%), 북한(22%), 이스라엘(20%), 이란(18%), 파키스탄(17%)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냉담한 평가는 비단 이번 조사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동일한 문항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조사에서도 세계는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2005년에는 38%, 2006년에는 32%, 2007년에는 28%만이 미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에 비해 부정적 평가는 각각 50%, 51%, 55%로 긍정적인 평가를 상회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미국에 대한 평가가 2008년도 조사에서는 다소 개선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도 2008년도에 이르러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 (2005-2008)



주) 2005~2008년 간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17개국 국민들의 평가의 평균으로, 4차례 조사의 일관성을 위해 조사국을 17개국으로 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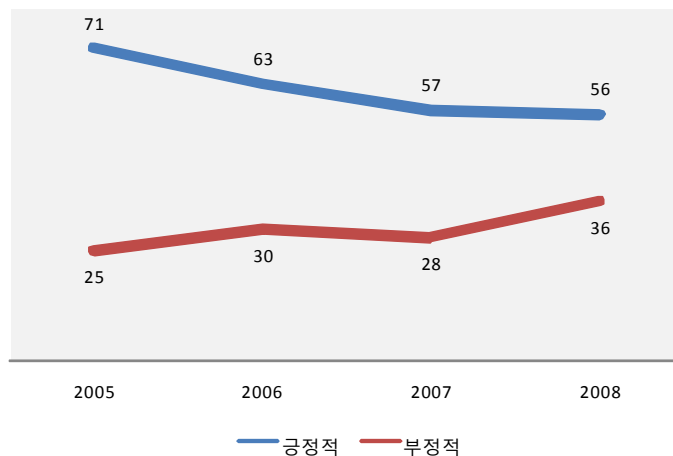
그렇다면 각 국가의 국민들은 미국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우선 미국을 가장 우호적으로 평가한 것은 케냐(80%), 나이지리아(66%), 가나(65%) 등의 아프리카 국민들을 비롯하여, 지난 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우호적이었던 필리핀(79%), 그리고 중미의 니카라과(70%), 온두



라스(67%), 파나마(58%) 등의 국민들이었다. 또한 이스라엘(68%)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과 국경을 접하면서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멕시코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10%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요 강대국 국민들의 평가도 냉담하기는 마찬가지다. 중국(38%), 영국(35%), 프랑스(32%), 호주(32%), 캐나다(27%), 일본(21%), 독일(20%), 러시아(19%) 모두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세계의 여론이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그간 미국이 추구해온 개입주의적 대외정책이 초래한 부정적 효과가 크다 하겠다. 이라크전이 대표적인 것이다. 심지어 미국 국민들도 자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다소 호의적이기는 했지만, 지난 4년 동안의 추이를 볼 때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1%에서 56%로 낮아지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5%에서 36%로 높아진 사실을 볼 수 있다. 이는 자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내부적 반성을 일부분 반영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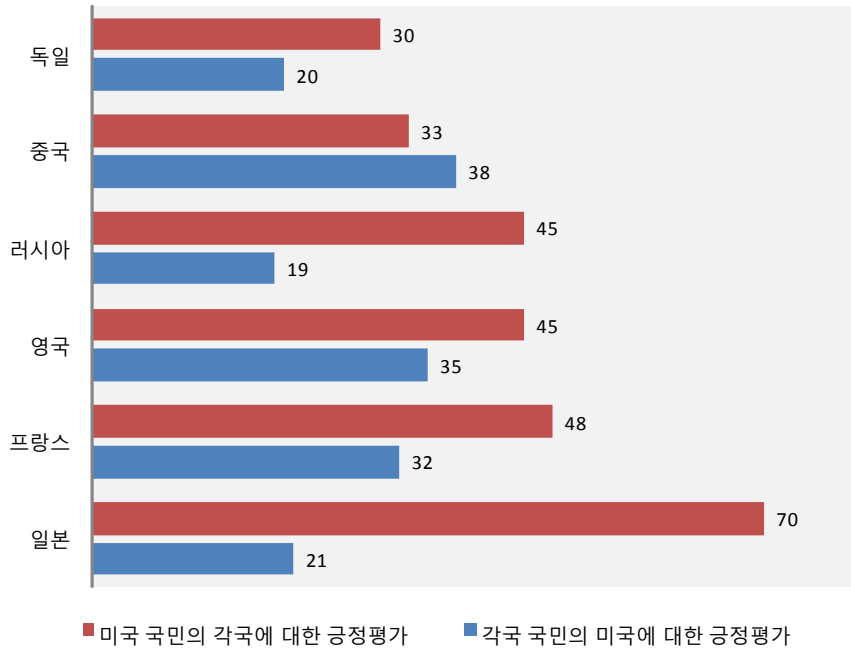
미국 국민들의 자국 영향력에 대한 평가 추이



그렇다면 미국 국민들은 과연 다른 국가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미국 국민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가는 일본(70%)이다. 그 뒤로 브라질(61%), 유럽연합(60%), 인도(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미국인들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일본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의 국민들은 미국의 대외 영향력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외로운 초강대국 미국의 대외관계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아이러니이다.



### 미국 국민의 주요국에 대한 평가 vs. 주요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평가





## 2008 국제사회의 대중국 인식

곽소희

- “중국의 국제 영향력” 에 한·미·일 국민 과반수가 부정적 평가
- 아프리카·호주·중동은 우호적 여론이 우세

중국은 2008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 쇄신에 실효를 거두었을까? BBC·EAI·한국리서치가 전체 34개국의 17,5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이 세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설문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9%가 긍정적으로, 3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동일한 설문조사결과(긍정적 영향 42%, 부정적 영향 32%)보다 다소 우호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는 현재 국제사회의 심각한 인권문제로 대두된 티벳유혈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의 조사임을 감안하면 이 시점에서 다시 동일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에 변동이 예상된다.

### 미국-중국 국민의 상대국 평가 변화(단위%)



2003년부터 대외정책의 기조로서 중국이 표방한 화평굴기(和平崛起)는 국제사회의 중국위협론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했다. 지속적으로 평화적인 다자외교를 통한 부드러운 힘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EU(45%), 북미(47%) 등지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의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미국·일본은 국민의 과반수(한국 50%, 미국 54%, 일본 59%)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중국 외교부에 적지 않은 당혹감을 안겨줄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주력하는 대외정책 중 하나가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국들이 바로 한·미·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의 미국에 대한 반미여론은 2006년 이후 점차 완화되어 절반보다 적은 46%로 나타났음에 반해 미국은 여전히 과반수이상의 반중여론이 우세하다. 일본과도 역사 인식의 갈등, 영유권 및 에너지





분쟁 등으로 인해 일본 내 중국에 대한 반중 여론이 조사국가들 중 독일(대중국 부정적 평가 59%)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중국의 ‘화평굴기’ 대한 국제여론이 비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65%)와 아랍에미리트(66%)를 비롯한 중동, 그리고 호주(60%)에서 중국의 국제영향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중국의 자원외교가 성공적인 실효를 거두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국정부가 2006년을 아프리카의 해로 선정할 만큼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쳐 온 아프리카는 대중국 긍정 평가에서 2006년보다 12% 상승한 65%를 나타냈다.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2000년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발족 이후 채무탕감, 차관제공, 인프라구축 등의 지속적인 경제지원을 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중동, 그리고 철광석, 아연, 니켈 등이 풍부한 호주도 중국에 대해 경제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우호적 여론을 보여주었다. 작년에 비해 호주의 대중국 긍정적 평가는 17%나 높아진 수치를 보여줘 중국이 호주의 자원수출 상대 교역국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